

소아 때 근시·원시 등 굴절이상 있으면 안경 꼭 써야

광주일보·전남대병원 공동주최

테마가 있는 건강강좌 <140>

우리 아이 첫 안경 쓰기

“우리 아이, 안경 꼭 써야 하나요?”

처음으로 안경 처방을 해야 하는 아이의 부모님들이 의사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는 말이다. 부모로서 어린 나이에 무거운 안경을 씌우는 것이 힘들고 한번 쓰면 계속 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어린아이에게 안경을 꼭 씌워야 하는가?

시력은 5세 이전에 대부분 발달하고, 10세 정도에 완성된 시력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 성인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 안경을 쓰거나 쓰지 않아도 되지만, 시력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아의 경우 굴절 이상으로 시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고 안경을 씌우지 않고 그대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된다면, 그 아이는 흐릿한 세상이 가장 선명한 세상으로 인지하고 시력 발달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인이 되어 안경을 씌워도 우리가 보고 있는 선명한 세상을 절대 보지 못하는 것이다.

◇10세 정도에 시력 완성 = 그럼 어떤 경우에 안경을 써야 할까? 약시를 유발할 정도의 근시, 원시, 난시, 부동시 등의 굴절 이상이 있으면 착용해야 하고, 사시의 치료를 위해 착용하기도 한다.

근시는 가까운 곳의 물체는 잘 보지만 먼 곳의 물체는 잘 못 보는 상태를 말한다. 영어로 ‘myopia’라고 하는데, 어원을 살펴보면 ‘눈을 가늘게 뜨고 본다’는 의미가 있다. 근시인 사람이 멀리 있는 것을 볼 때

시력 5세 이전 대부분 발달 ... 10세 정도면 이미 완성 단계

약시 일찍 발견해 치료 시작할수록 시력 좋아질 가능성 커

잘 보기 위하여 눈을 가늘게 뜨는 것을 가리켜 붙여진 이름이다. 근시의 원인은 대부분의 경우 안구가 길어지기 때문인데, 아이가 자라면 키가 크고 발이 커지듯이 눈도 역시 커진다. 이 때 안구가 지나치게 길어지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망막보다 앞쪽에 초점을 맺고, 망막에는 희미한 상이 맺히게 돼 물체가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경우 오목렌즈 안경을 씌우면 망막에 초점이 맺히게 돼 물체가 깨끗하게 보이게 된다.

성인이 안경 쓰는 이유 대부분은 근시 때문이다. 부모에게 근시가 있으면 아이에게도 근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근거리 작업을 오래 하는 것과 야외 활동 시간이 줄어들어 따른 빛 자극 부족이 근시 진행에 영향을 준다는 최

근 연구가 있다.

원시는 안구가 작아 빛이 망막보다 뒤쪽에서 초점을 맺는데, 원시는 내사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두 눈의 원시 차이가 약간만 있는 경우(부동시)에도 약시가 생길 위험이 높아 근시보다 더 주의가 필요하다. 근시와는 반대로 볼록렌즈 안경을 씌우면 빛의 초점이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망막에 맺히게 돼 선명한 상을 볼 수 있다.

난시는 물체를 볼 때 한 점에 정확한 초점이 맺히지 못하고 두 점 이상에 초점이 맺히는 상태로 원주렌즈안경으로 교정이 가능하다.

◇3세 이전에 안과 진료는 필수·약시를 근시, 원시, 난시 등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 부모들이 많다. 약시는 눈의 구조적

허환
전남대병원 안과 교수



-전남대병원 인턴,레지던트
-전남대병원 안과 임상교수
-전남대 의대 안과학교실 조교수
-소아안과·사시·신경안과 전문진료

인 이상이 없이 두 눈의 안경을 쓴 시력(교정시력)이 시력표 두 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눈의 각막, 망막,

시신경 등의 구조물은 정상인데 안경을 써도 한 눈의 시력이 다른 눈보다 나쁜 것이다. 약시는 일찍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할수록 시력이 좋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치료는 굴절이상을 안경으로 교정해주고, 시력이 좋은 눈을 가리게나(가림치료) 약물로 보이지 않도록 하여 나쁜 눈을 쓰도록 하는 것이다. 7-8세가 다 되어서 약시를 발견, 내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시기에는 나이가 많아 약시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들은 굴절이상인 아이가 어려서 안경으로 시력을 잘 관리한다면 성인 때 라식 등 굴절교정수술로 안경을 벗을 수도 있지만, 안경을 씌우지 않고 방치해 약시가 생긴 경우는 어떤 수술로도 정상 시력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적어도 만 3세 이전에 안과를 찾아 근시, 원시, 난시 등의 굴절이상과 사시 여부를 검사하고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정리·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환자 안전의 날’ ... 낙상사고 등 사전 예방



전남대병원(병원장 이상용)이 최근 환자 안전관리를 위한 ‘환자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전남대병원 의료질관리실(실장 박용욱 류마티스내과 교수) 주관으로 ‘함께해요 환자안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행사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환자 혼선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직원 및 보호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대병원 제공>

광주 신세계안과, 호남 최초 안구건조증 치료장비 도입

눈물 증발 장애 진단·치료

리피뷰·리피플로우

안구건조증센터 개소 예정

광주 신세계안과(대표원장 김재봉·사진)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안구건조증 환자의 체계적인 치료를 위해 안구건조증센터를 개소했다. 특히 호남 최초로 안구건조증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리피뷰’(Lipiview)와 ‘리피플로우’(Lipiflow) 장비를 도입해 원스톱 케어 서비스를 발 빠르게 구축했다.

안구건조증은 눈물 분비 부족뿐만 아니라 눈물이 빠르게 증발하거나 눈물 생성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리피뷰는 눈물막의 지방층을 분비하는 마이봄샘의 이상 여부를 진단하는 장비로 눈물막 지방층의 두께, 불안전 눈 깜빡임, 마이봄샘의 구조를 정밀검사해 안구건조증의 원인을 파악한다.

리피플로우는 리피뷰의 검사 결과를 토

관의 염증 등 원인이 다양하고 치료법도 달라 정확한 검사와 진단이 필수다. 이에 광주 신세계안과는 다양한 안구건조증 진단 및 치료 장비 등을 도입, 안구건조증

대로 안구건조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이봄샘에 생긴 문제로 인해 눈물 증발이 과도한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을 준다. 위아래 눈꺼풀에 있는 마이봄샘을 동시에 치료해 주는 리피플로우는 마이봄샘에 42.5도의 열을 직접 전달함과 동시에 부드러운 연동압력을 가해 기름찌꺼기 배출을 원활하게 해준다. 양안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으며, 각막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내장돼 있어 보다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다.

신세계안과 김재봉 대표원장은 “눈은 외부에 항상 노출돼 있지만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만큼 건조증 증상이 심해진다면 꼭 안과에 방문해 적절한 치료와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총 105억 규모 국책연구 MRC 사업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최종 선정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고정태(사진) 교수 연구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19년 선도연구센터사업(기초의과학분야, MRC)’에 최종 선정, 7년간 총 105억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연구팀은 향후 ‘경조직 바이오인터페이스 연구센터’의 이름으로 경조직 항상성

조절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질환의 예방,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신개념 원천기술 확보에 대해 연구하게 되며, 광주시와 ㈜쿠보텍의 지원을 받아 경조직 질환 극복을 위한 실용화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11년 ‘바이오미네랄장애연구센터(센터장 고정태)’에 이어 2019년에 ‘경조직 바이오인터페이스



연구센터’가 선정됐다. 연구 책임자인 고정태 교수는 “경조직 바이오인터페이스 연구센터는 인체 조직과 경조직사이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경조직 질환의 새로운 병인과

제어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현대사회에 만연한 염증·대사질환 환자의 경조직 질환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회사 사정상, 신창동 근린상가, 급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 - 7억 5천만원

문의. 010-6834-7400